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8월 3일(수) 총 4매		
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	• 시민소통팀장 • 담당자	안성기 최대리사	☎440-2016 ☎440-2017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소통’ 에서 집단민원 해결 실마리 찾는다

- 8월 3일, 민선8기 첫 번째 ‘집단민원 소통의 날’ 열어 -
- “진정성과 배려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신뢰받는 시정 이끌 것” -

인천시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해결 집단민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소통’ 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3일 소접전실에서 장기 미해결 주요 6개 집단민원 대표자들과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집단민원 소통의 날’ 을 열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해결을 요청한 시민들에게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지난 6월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 당시 실시된 소통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겠다” 고 밝혔던 만큼, 이번 집단민원 소통의 장은 그 연장선인 셈이다.

이날 유 시장이 만난 집단민원은 ▲논현동 소래습지 국가공원 지정 갈등 ▲서구 가정동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양도 요구 ▲효성도시개발사업 강제이주·철거 반대 ▲송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토지 민원 ▲GTX-D, Y자 노선 반영 요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지정 반대 등 총 6건이다.

이들 민원은 지난 몇 해에 걸쳐 갈등의 골이 깊어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유 시장이 직접 각각의 민원을 개별 면담해 진정한 공감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소통의 장에는 논현33지구 지주조합과 (주)아스터개발 대표, (가칭)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원회, 효성지구비상대책위원회, 송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토지 공유지분 소유자, GTX-D, Y자 노선 예타면제 추진관련 단체,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지정반대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인천시와 집단민원 대표자들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양측의 노력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단데 인식을 같이 했다.

시는 해결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적극 찾고, 관련 법 규정으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와 양보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유 시장은 “민선8기의 핵심가치인 ‘소통’ 은 진정성과 배려가 기본

이 해야하며,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자 시민이 행복한 인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 소통과 다각적 방안 제시, 합의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신뢰받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집단민원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며, 오는 11월 중 제2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제1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 안건 내용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제1차 집단민원 소통의 날 안건내용

연번	안건명	민원 주요내용
1	논현동 소재습지 국가공원 지정 갈등	○ 소래A, B공원 결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발생 - 국가공원 제척 또는 대토부지 제공, 현실가 보상 요구(지주조합) - 물류창고 개발을 위한 공원 제척 요구(아스터개발)
2	서구 가정동 재건축사업을 위한 토지양도 요구	○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제외된 5개 단지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정 (2021. 11.19.)관련하여 사업부지 주변 토지를 포함 및 민원인의 대표성 인정 요구
3	효성도시개발사업 강제이주·철거 반대	○ 보상대상 여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에서 재결을 통해 결정 할 사항으로, 사업시행자의 임의 판단은 위법하며 보상대상에게 보상없는 강제집행은 위법
4	송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토지 민원	○ 토지강제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 주장 - 주민제안 당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원인 토지를 미추홀구청장이 인천시와 사전협의하여 타당한 사유와 의견수렴 없이 조합의 사업이익을 위해 편입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됨
5	GTX-D, Y자 노선 반영 요구	○ GTX-D Y자 완성은 대통령 및 시장 주요 공약이므로 조속한 건설 필요(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정 반영 및 예타 면제 등 반영 요구)
6	영일정씨 동춘묘역 문화재지정 반대	○ 문화재 등록 절차상 하자, 문화재 가치 불인정, 역사문화 보존지역 지정 재산권 침해로 문화재 지정 반대